

제 55회 언더우드 학술강좌

2018. 9. 9.(주일)

개회기도

송인철 장로

활동보고

정규정 팀장

향후 5개년 주제

ſ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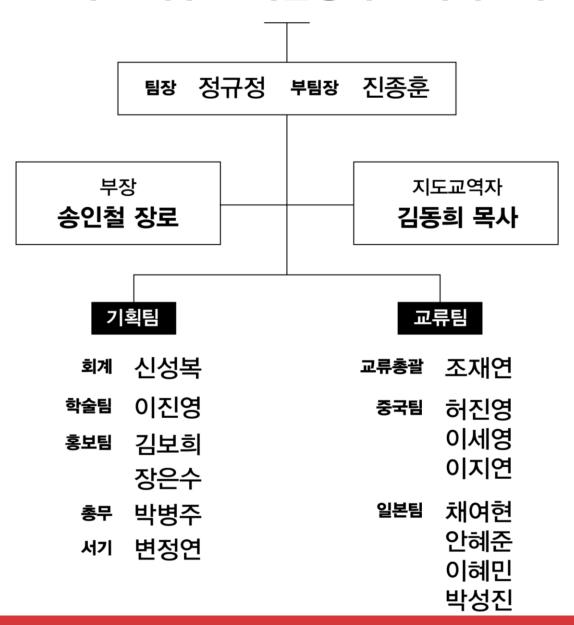
J

올해 주제 및 주제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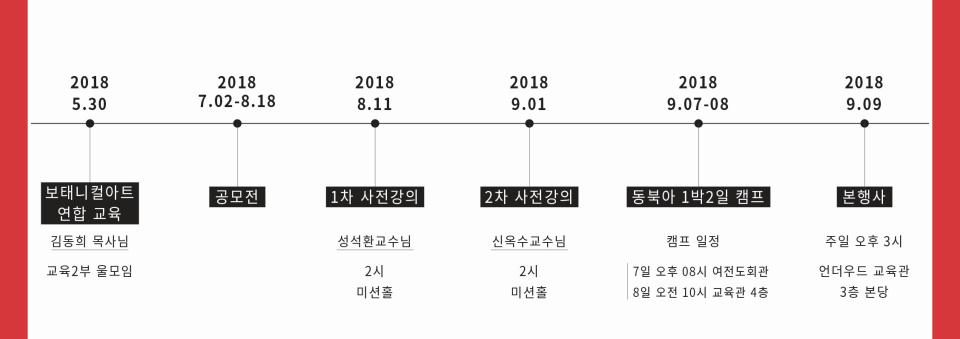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장 13절

55회 언더우드 학술강좌 준비위원회



연간 행사 일정



5월 보태니컬아트 연합교육









7-8월 공모전







지체와 지체는 이어져 있어 작은 상처에도 눈물이 나는데 마비된 몸처럼 이 교회는 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느끼질 못하는가

슬픔과 기쁨 사이 / 갈등과 화평 사이 / 궁함과 부요함 속

주님이 행하신 일 / 기억하며 따르리 / 온 힘을 다해

휘장을 걷고 주님 내게 오셨네 /모든 물과 피 우릴 위해 쏟으셨네 죽을 영혼 살리려 자신을 찢으셨네 /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이신 예수여

휘장을 걷고 주님 내게 오셨네 / 모든 물과 피 우릴 위해 쏟으셨네 죽을 영혼 살리려 자신을 찢으셨네 /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이신 예수여 도우소서

8월 18일 1차 사전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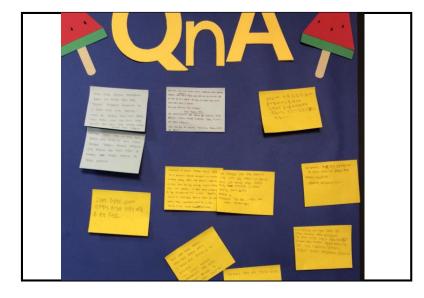






9월 1일 2차 사전강의









9월 7-8일 동북아캠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장 13절

공모전 시상

공모전 당선자 명단

[소논문] 최우수 - 장창대

[에세이] 최우수 - 안희원 우수 - 스기야마 준키 입상 - 편선영, 박진우

[창작품] 최우수 - 천민지 우수 - 이빛나라

강의

강사 소개



신옥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

강의

신옥수 교수



신옥수 교수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Fuller 신학교(Ph.D.) (현)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조직신학)

양성평등과 한국교회

신옥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1. 왜 양성평등인가?

- 양성평등(gender equality):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과 기회,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공동의 발전과 그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
- 현재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짐
- 한국교회에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2. 성서 속의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

자료집 57쪽

- 신구약성서는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음
 - 창조기사 (창 1:26-28)
 -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불평등의 문화
 가 지속되어 옴

2. 성서 속의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

자료집 57쪽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됨
 - 여성에 대한 비유 사용
 - 청중에 여성 포함(눅 11:27-28)
 -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마 21:31-32)
 - 일부일처제 주장(막 10:6, 마 19:4)
 - 이혼 금지 명령(마 19:6)
 - 혈우병 앓는 여인 치유(막 5:25-34)
 - 18년 장애인 여인 치유(눅 13:10-14)
 - 여성들을 제자의 반열에 올림(눅 8:1-2, 막 15:40-41, 마 27:51-56)
 -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음(눅 24:1-10, 마 28:1-10, 막 16:1-8, 요 20:1-18)

2. 성서 속의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

자료집 58쪽

-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모습
 - 오순절에 성령이 남녀 구분 없이 임함(행 1:14, 2:1, 18)
 -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행 5:14)
 - 및 남성들과 함께 핍박(행 9:1-2, 17:4, 12, 34, 22:4-5)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르침(행 18:26)
 -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서 예언함(행 21:9)
- 바울의 선언 (갈 3:28, 고전 12:13)
- 래티 러셀(Letty M. Russel) "창조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환 평화이며 회복된 남녀의 관계는 "동력 " 관계다

3. 교회역사 속의 양성평등

자료집 59쪽

- 초기 교회의 특성: 포괄적 공동체
 - 평등의 제자직(discipleship of equals)을 수행하는 공동체
 - 상당수 여성들이 책임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함
- 콘스탄틴 대제의 공인 이후 (2세기) 여집사제도 폐지
- 중세교회 : 잘못 태어난 남성 "the misbegotton male"
- 현대에 이르러 교회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짐
 - 지배체제에서 평등한 사귐의 공동체로 나아감

4. 한국 교회의 양성평등의 현실

자료집 60쪽

■ 성차별적, 비민주적 교회의 구조와 문화

- 한국 교회는 전체 교인의 70%이 여성임에도 불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배적임
- 한국 교회는 남성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 교회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

■ 여성안수를 통한 교회의 민주화

- 199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첫 여성안수 시행
- 2018년 현재 여목사 약 2000명, 여장로 1000명의 가파른 수적 증가를 보임
- 하지만 총회 총대의 수에서 여성 총대는 17명으로 전체 1,500명의 총 대 중 1% 상회
- 남편을 먼저 장로로 선출하는 게 순서라는 의식

5. 한국교회 양성평등의 미래 : 한국교회 파트너쉽 문화 형성의 과제

■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이 회복되는 교회

자료집 63쪽

-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이 회복되는
 통전적 교회를 지향해야 함
- 남성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여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식의 개혁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함
- 일혀지고 낮게 평가되어 온 여성적 원리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함

■ 제도적 제안들

- 양성평등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교단 차원에서의 제도적 접근 필요
- 정책 의결기구에 여성 참여 확보가 필수적
- 교회의 일상적 삶에서 성차별적 언어나 관행을 시정해야 함
- 교회 안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남성 목회자의 의식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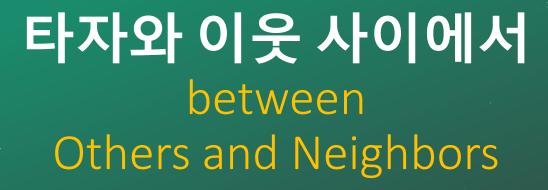
강의॥

성석환 교수



성석환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Th.D.) (현)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기독교 문화)



성석환(장신대/기독교와 문화)

한국사회의 타자인 한국교회

MARTIN LUTHER

일대 쇄신을 약속하며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총회는 총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방법으로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총회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며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전 원을 출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노회는 다시 한 번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으로 인하여 그간에 발생한 모든 사 札에 대하여 67개 그 어느 노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에 마땅한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8년 8월 31일



		(0)	511	ALC:E	5-1-m	종교	(종교없음)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연령별	19-29세	266	10	18	3		69
	30대	291	11	20	7	0	62
	40CH	326	21	20	9	0	49
	50대	295	32	23	5	0	40
	60세 이상	322	35	24	8	0	32
직업별	농/임/어업	27	-	-	-	-	-
	자영업	199	27	19	9	0	45
	블루칼라	368	21	23	5	1	50
	화이트칼라	375	15	19	9		57
	가정주부	345	30	25	5	0	39
	학생	109	9	16	4		70
	무직/은퇴/기타	79	28	21	3		48
지역별	서울	309	14	24	8	0	54
	인천/경기	440	18	27	7		48
	강원	46	-		-		
	대전/세종/충청	155	20	18	9	1	53
	광주/전라	154	14	31	6	1	48
	CN 7 /24 M	156	22	13	0	100	4E

• 지속적인 탈종교화

		(0)	ST	ALC:	で十年	종교	(종교없음)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연령별	19-29세	266	10	18	3		69
	30대	291	11	20	7	0	62
	40CH	326	21	20	9	0	49
	50대	295	32	23	5	0	40
	60세 이상	322	35	24	8	0	32
직업별	농/임/어업	27	-	-	-	-	-
	자영업	199	27	19	9	0	45
	블루칼라	368	21	23	5	1	50
	화이트칼라	375	15	19	9		57
	가정주부	345	30	25	5	0	39
	학생	109	9	16	4		70
	무직/은퇴/기타	79	28	21	3		48
지역별	서울	309	14	24	8	0	54
	인천/경기	440	18	27	7		48
	강원	46					
	대전/세종/충청	155	20	18	9	1	53
	광주/전라	154	14	31	6	1	48
	CN 7 /24 M	156	22	13	0	100	AE

- 지속적인 탈종교화
- 젊은층에서 반기독교 정서 팽배

		(0)	511	ALC:	で十年	종교	(종교없음)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연령별	19-29세	266	10	18	3		69
	30대	291	11	20	7	0	62
	40대	326	21	20	9	0	49
	50대	295	32	23	5	0	40
	60세 이상	322	35	24	8	0	32
직업별	농/임/어업	27	-	-	-	-	-
	자영업	199	27	19	9	0	45
	블루칼라	368	21	23	5	1	50
	화이트칼라	375	15	19	9		57
	가정주부	345	30	25	5	0	39
	학생	109	9	16	4		70
	무직/은퇴/기타	79	28	21	3		48
지역별	서울	309	14	24	8	0	54
d halder	인천/경기	440	18	27	7		48
	강원	46	-		-	-	
	대전/세종/충청	155	20	18	9	1	53
	광주/전라	154	14	31	6	1	48
	CN 7 /24 PE	156	22	13	0		AF

- 지속적인 탈종교화
- 젊은층에서 반기독교 정서 팽배
- 2015 비종교인 56.1%(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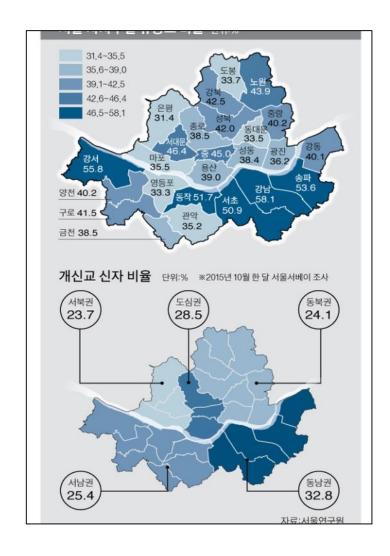
		(0)	5 tr	ALC:	27-11	종교	(종교없음)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연령별	19-29세	266	10	18	3		69
	30대	291	11	20	7	0	62
	40CH	326	21	20	9	0	49
	50대	295	32	23	5	0	40
	60세 이상	322	35	24	8	0	32
직업별	농/임/어업	27	-	-	-	-	-
	자영업	199	27	19	9	0	45
	블루칼라	368	21	23	5	1	50
	화이트칼라	375	15	19	9		57
	가정주부	345	30	25	5	0	39
	학생	109	9	16	4		70
	무직/은퇴/기타	79	28	21	3		48
지역별	서울	309	14	24	8	0	54
	인천/경기	440	18	27	7		48
	강원	46	-			-	
	대전/세종/충청	155	20	18	9	1	53
	광주/전라	154	14	31	6	1	48
	CU 7 /24 H	156	22	13	0	110	45

- 지속적인 탈종교화
- 젊은층에서 반기독교 정서 팽배
- 2015 비종교인 56.1%(통계청)
- 가나안 교인 200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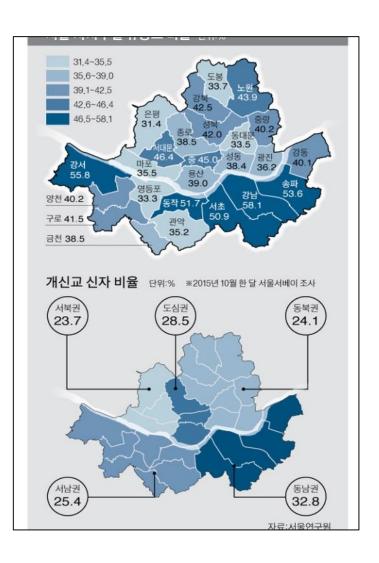
		(0)	511	Allen	で十年	종교	(종교없음)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연령별	19-29세	266	10	18	3		69
	30대	291	11	20	7	0	62
	40대	326	21	20	9	0	49
	50대	295	32	23	5	0	40
	60세 이상	322	35	24	8	0	32
직업별	농/임/어업	27	-	-	-	-	-
	자영업	199	27	19	9	0	45
	블루칼라	368	21	23	5	1	50
	화이트칼라	375	15	19	9		57
	가정주부	345	30	25	5	0	39
	학생	109	9	16	4		70
	무직/은퇴/기타	79	28	21	3		48
지역별	서울	309	14	24	8	0	54
	인천/경기	440	18	27	7		48
	강원	46			-		
	대전/세종/충청	155	20	18	9	1	53
	광주/전라	154	14	31	6	1	48
	대기 (개부	156	22	12	0	185	45

서울시 학력별 종교인구(단위:%)				소득별 종교인구		직업분류별 종교인구		〈자료:서울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천주교		개신교	불교천주교
중학교 이하	25,4	17,8	8,0	100만원 미만 26	15,26,1	관리전문직	27,9	11,1 9,1
	Armen	100000		100만~200만원 미만 24	0 16.410.5		ANTENNA Marian	
고졸 이하	25,9	13,3	9,3	200만~300만원 미만 22	8 12.0 8.8	화이트칼라	26,9	5.7 9,9
대졸 이하	26,7	6.8 9.7		300만~400만원 미만 27	9,18,7	블루칼라	25,0	11,3 9,0
				400만~500만원미만 26	8 9,2 9,7			
대학원 이상	35,8	7.	8 13,4	500만원이상 27	.2 9,910,0	기타	26,9	12,7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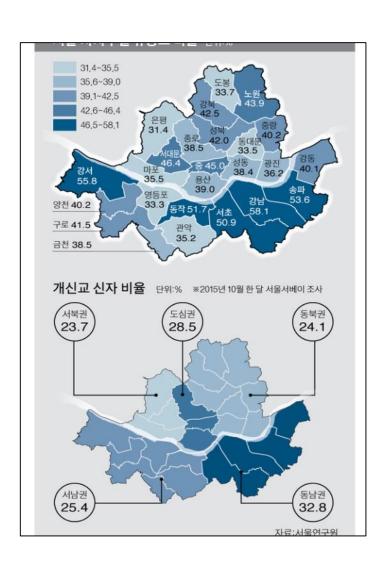
주류로서의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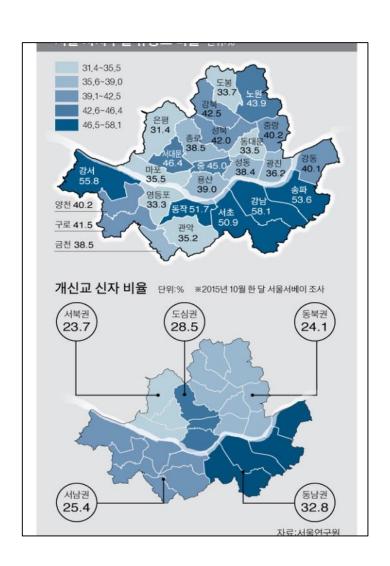
• 서울연구원 2015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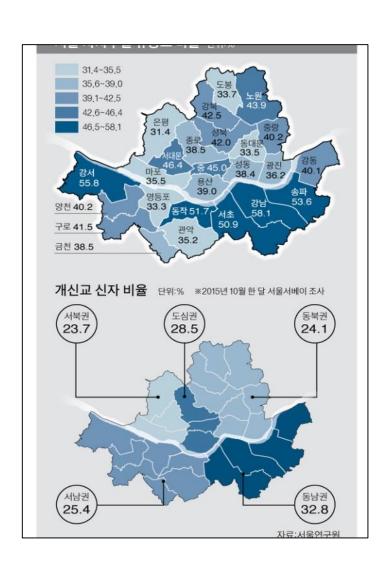
- 서울연구원 2015년 조사
- 강남 3구에 집중된 기독교 인구



- 서울연구원 2015년 조사
- 강남 3구에 집중된 기독교 인구
- 청년들이 교회 가는 이유: 세습유대감



- 서울연구원 2015년 조사
- 강남 3구에 집중된 기독교 인구
- 청년들이 교회 가는 이유: 세습유대감
- 가나안교인 200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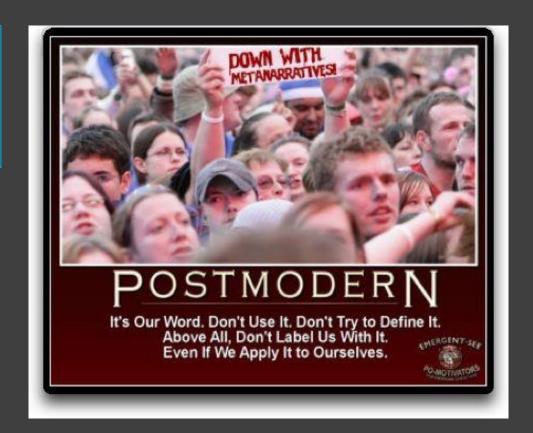






근대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타자

포스트모더니즘 & 타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 <정의란 무엇인가?>
- 근대의 자유주적 개인주의
- 공동체적 유익-공공선





- <유동적 근대화>
-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 자유가 아니라 힘과 돈의 타율이다.

신빈곤 한국사회

- ▶ 신빈곤 사회란?
-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2004)
- ▶ 소비의 능력으로 노동력 판단: 끊임없는 소비로 경제 유지
- ▶ 가난은 개인의 능력 부재의 탓
- ▶ 과거에는 빈곤층을 노동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생산력 증대라는 경제적 의미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지만,지금은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과 생산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상품 시장의 유혹과 자극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열등하고 무능한 비소비자인 가난한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유기된다.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한국교회

- 기독교 문화사역-문화선교-문화운동
- 변혁과 소통의 이중주
- 87년 이전과 이후의 의미
- ① 87년 이전: 문학의 밤, 여름성경학교-지역성&탈사회성
- ② 87년 이후: 경배와 찬양, 열린예배-탈지역성&선교성

개인 vs. 사회

- •웰빙?
- •개인의 주관적 행복
- 공동체적 관계성
- Social Cohesiveness
- Social Capital(VCS)
- •사회선교의 자리

1987-2017 한국사회, 문화사회, 문화복지

- 1987 민주화와 문화사회(정치)
- 90년대 문화복지
- •문화운동의 지역화-지역동동체
- 참여적 문화복지
- 마을만들기 / 도시재생
- •사회적 경제-사회선교의 지평

꼴찌없는 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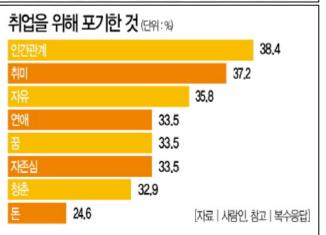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강서구 특수학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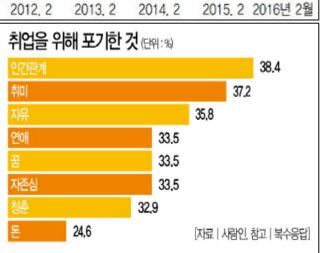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청년임대주택과 지역사회 갈등







기꺼이 타자로 살기!

기꺼이 일회용으로 살기?



MCNK • 한국선교적교회네트워크 6월 세미나

선교적 교회는 그분이 일하시는 곳과 방식을 발견하고, 초청에 용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다. 그분은 종종 세상의 가장 바깥에서 일하는 예술가들, 몽상가들, 실험가들에게 영감 을 주시고 한 세대를 이끌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신다.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 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2018.6.2.SAT. AM10:00-PM1:00 남산 나인후르츠미디어(바람빛교회)

지역에서 듣는 청년 이야기

-교육사회적협동조합 '함다락' 이사 -청년축제 및 청년나다움포럼 기획/운영 -도봉구시민협력플랫폼 총괄책임 -청소년 교육문화플랫폼 LOE 대표 -피플퀘스트/PwC 경영 컨설턴트





공간에서 듣는 청년 이야기

-엔스페이스 창립 및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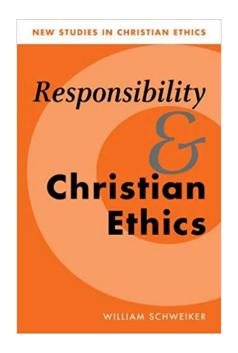
-비영리 미디어교육 (SMlab) 프로젝트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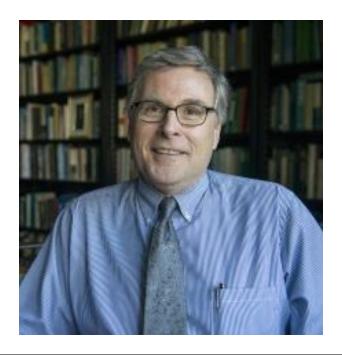
-청어람 아카데미 기획실장

10,000원 (현장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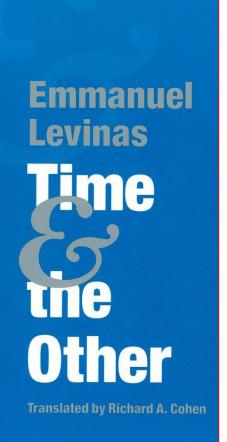
세미나문의 010-9266-5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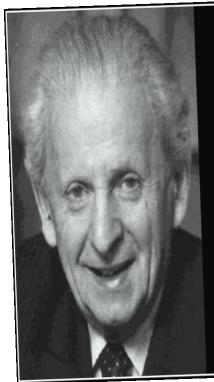
타자로 살지 않기 이웃으로 살기 공유경제로 살기





William Schweiker





If one could possess, grasp, and know the other, it would not be other.

— Emmanuel Levinas —

AZ QUOTES



organization vs. organism

organization vs. organism goal oriented life oriented

organization vs. organism goal oriented life oriented mechanic vital

organization vs. organism goal oriented mechanic managemental

life oriented vital proliferative

goal oriented mechanic managemental self or us

organization vs. organism life oriented vital proliferative others or neigh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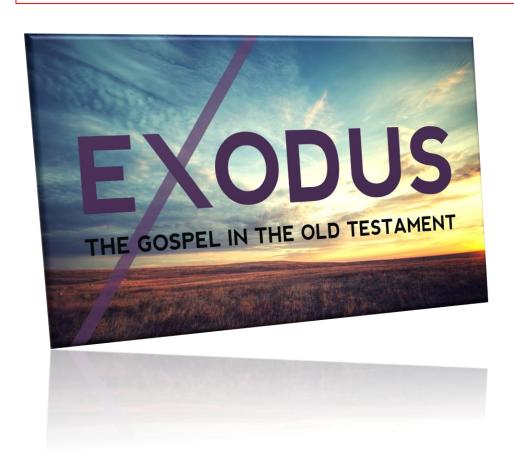
Church for the Common Good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all people)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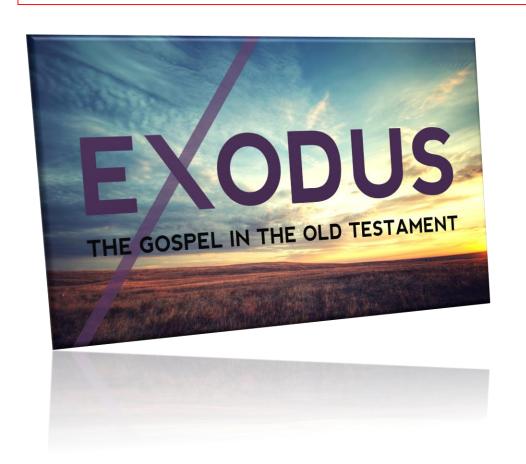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 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 익(the common good)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 6-7)

타자의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



타자의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8)





독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방법

THE REFORMATION AT 500

Germans Are Welcoming Refugees as a Way to Honor Luther's Legacy

Asylum seekers and immigrants are big part of the Reformation's 500th anniversary in Germany.

JIM WILLIS IN BERLIN | AUGUST 1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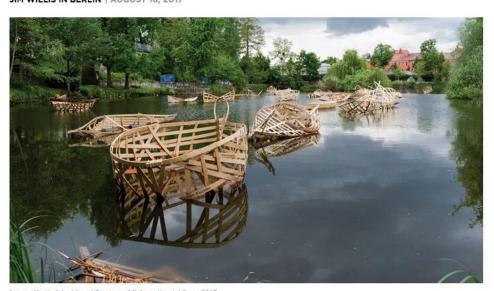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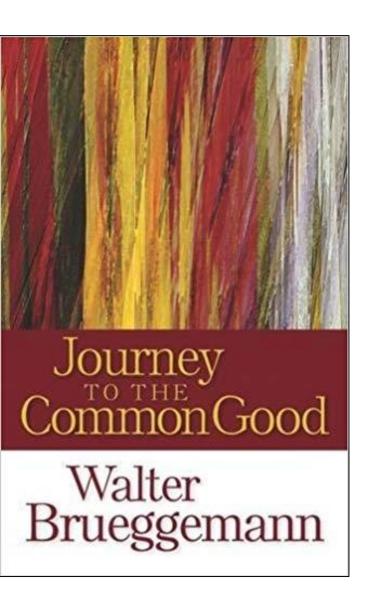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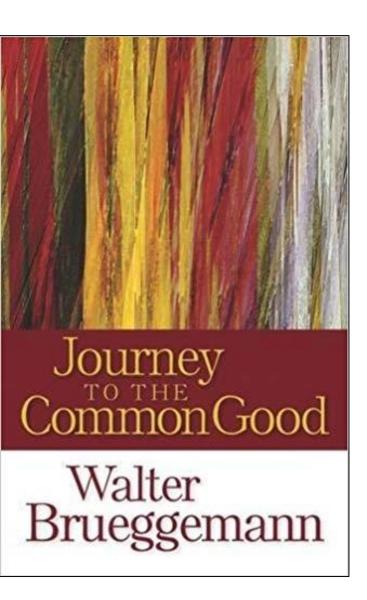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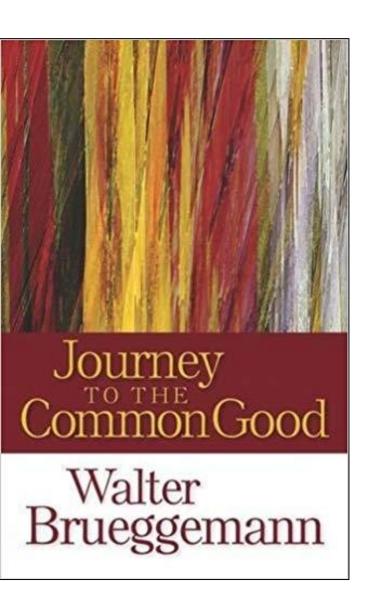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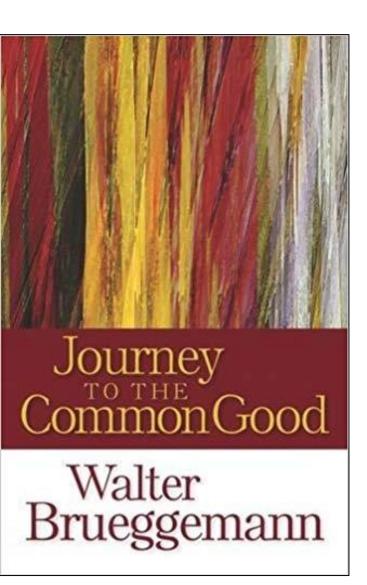
Image: Martin Jehmichen / Courtesy of Reformationsjubilau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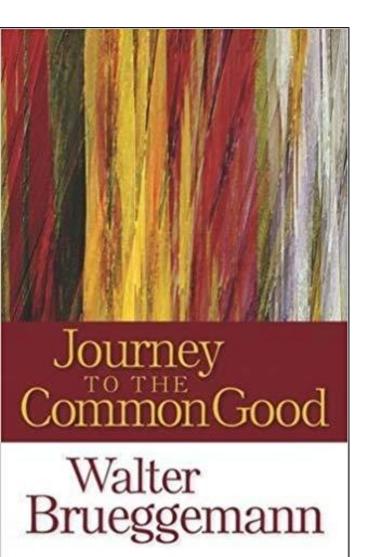




• 바로의 결핍(scarcity)의 제국에서 야훼의 풍요의 광야로



- 바로의 결핍(scarcity)의 제국에서 야훼의 풍요의 광야로
- 쓸모 없는 인간이 버려지는 자본의 제국 에서



- 바로의 결핍(scarcity)의 제국에서 야훼의 풍요의 광야로
- 쓸모 없는 인간이 버려지는 자본의 제국 에서
-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공동선 (common good)'으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마 25:40)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 (마 25:45)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작담회

폐회기도

이상학 담임목사

단체사진 촬영